

정례브리핑

2021.6.14.(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내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 간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남북당국 간 회담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 체결 등 북·미 관계 진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이러한 성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금주 중에 개최되는 국회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6.15 21주년 기념행사 등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개관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거주한 고양시 사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오늘 개관 행사를 갖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6.15 공동선언 등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의 뜻을 기리게 됩니다.

내일 6월 15일 오후 2시에는 민화협과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주체하는 '2021년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현주소, MZ 세대의 평화와 통일 등을 주제로 민화협과 국회 주요 인사,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도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이용선 국회의원과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등이 주체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남북평화관광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 방문, 접경지역 관광 등 북한 평화관광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2021년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을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에 맞추어 내일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 27일 일요일까지 12박 13일간 6월 동서횡단 여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70여 명의 참가자가 접경지역 약 290km를 함께 행진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 방역관리, 참가자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기타 일정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오늘 6월 14일부터 수요일인 6월 16일까지 사흘간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해외 차세대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2021 해외신진학자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조금 전부터 열리고 있는 아카데미 입교식 행사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특강과 학술회의 등의 주요 내용 등은 통일부 영문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이달 상순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거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답변> 질문 주신 대로 북한은 지난 6월 4일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6월 상순에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 현재까지 당 전원회의 개최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1일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에도 당 전원회의 개최를 전후해서 당 중앙군사위 등을 개최해 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확대회의 개최 등도 당 전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상순 개최를 예고한 만큼 정부도 앞으로도 당 전원회의 개최 동향 등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G7에서 북한 관련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통일부 입장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G7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이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처럼 국제사회가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대해 공통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우리 측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그리고 오는 16일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이 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질문 주신 대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질문 주신 대로 6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이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연락채널은 남북 간 가장 기본적인 소통수단이고, 남북연락채널의 유지는 2018년 '판문점선언'을 비롯해서 남북이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남북연락 채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연락 채널 복원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남북연락 채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남북이 기존의 연락협의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계기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연락 채널 복원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내일 6.15 공동선언 21주년 맞춰서 DMZ 걷는 행사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6.15 선언 21주년을 맞은 정부 차원의 행사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1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의 첫 시작을 6.15 공동선언 21주년인 6월 15일에 맞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행사 자체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기념식 등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간, 지자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진행하는 기념행사 등을 통해 기념이 되고 있고요. 이런 행사들에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거나 통일부가 같이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도 6.15에 맞춰 시작을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6.15 공동선언의 의미 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정부 차원의 6.15 기념식이라든지 기념행사라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를 6.15에 맞춰서 처음 시작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6.15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의 취지를 기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